지하자원·천연가스의 보고

◇ 교수기고—소련의 에너지 자원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토로이카 이후 자유세계와의 교역을 갈망하는 소련은 현재 지불능력이 취약하며 지하자원과 목재 및 싼 노동력등을 담보로 자유세계 경제체제에 접근하고 있다. 소련이 가지고 있는 지하자원 중에서 우리가 가장 탐나는 자원은 에너지 자원이다.

특히 소련의 천연가스는 세계 제1위로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세계추정매장량의 43%나 되는 1,400MTOE(metric Ton Oil eguivalent)에 해당한다. 또 석유도 상당량 매장되어 있고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3위로 63.0MTOE 이며 이는 전세계 석유 매장량의 9.4%에 해당한다. 석탄은 미국다음으로 세계 제2위의 매장량 264.89MTOE으로 전세계 추정매장량의 26.9%라는 막대한 량이다.

우라늄광도 상당히 있으나 대외 비밀이 되어 확인된 문헌은 나오지 않고 있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에너지 자원은 천연가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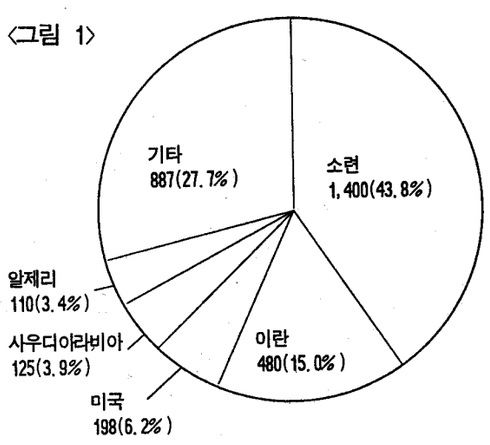
특히 근래에 와서 서시베리아와 사할린 지역에서도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되어 우리나라 동해안을 거쳐 일본까지 파이프라인 건설이 예약진행되어 지고 있다.

소련은 너무 혹한기가 길어 공사하기가 힘들고 지역적으로 어려운 난공사 지역이 너무 많아 일본인들도 아직 말만 서로 앞세우고 공사진척을 못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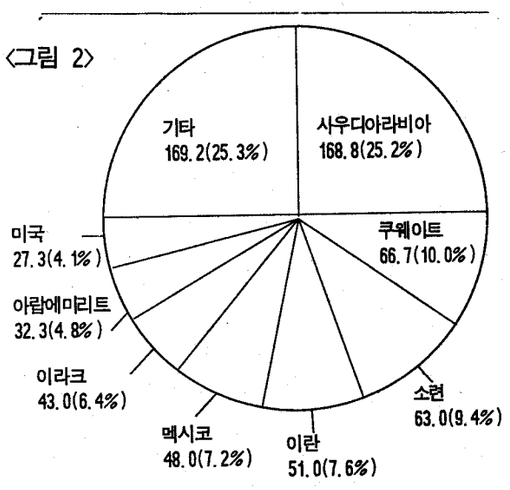
다행이 천연가스는 송수관만 묻어놓으면 동파나 막히는 일이 없어 국내수입이 용이하다.

앞으로 소련과 외교가 열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이 바로 가스관의 설치공사와 소련으로 부터 가스구입을 해야 할 것이다. 소련은 이미 일상생활 소비재를 다량 필요로 하고 지불능력이 없으니 우리에게 가져올 것이라곤 천연가스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근래 소련의 에너지 정책을 보면 유럽쪽 소련의 원자력 발전에 치중했던 것이 체르노빌 폭발로 원자력에 의존하는 것이 국민여론에 부딪히게 되었고 실제 국내에너지 수요도 현재의 생산량이 따라가기 힘들게 되어 있다.



추정된 세계의 천연가스 매장량 비교



추정된 세계의 석유 매장량 비교

소련의 천연가스 매장량 전세계의 43%
자유세계와의 교역확대따라 상업성 증대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하는 서유럽과 동구권에 많은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어 점점 깊숙히 묻힌 시베리아 얼음산을 뚫어야만 되게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우디 아라비아에 건설 수출을 통해 어려운 더위를 이기고 수출경쟁에서 큰 장벽을 넘은 경험이 있다. 이제 우리는 소련의 건설과 소비재 수출, 그리고 추운곳에서 가스 파이프 공사를 통해 나름데로 한번 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다.

국내문제로 젊음과 국력을 소비하는 일은 될수있는 대로 지양하고 내적으로 단합해서 외국과의 경제교류를 활발히 열어 국익을 도모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본다.

정 현 채
〈문리대교수·화학〉

올바른 시각정립 절실한 현대史

— 한국 역사연구회 주관 제3회 한국사 특강

과학적·실천적 역사학의 지향과 연구성과의 대중화를 위한 '한국 근현대사의 쟁점'이란 주제의 제3회 한국사 특강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6시 한국역사연구회 주최로 한국역사연구회 대회의실에서 6회에 걸쳐 약100명이 등록, 진행되었다.

역사란 과거의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합법칙성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역사학습의 의의는 자기 삶의 변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민족·민주운동권에서는 목전의 투쟁에만 치중 변혁운동의 흐름속에서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된다. 바로 여기에 역사학습의 의의를 두는 김광운(한국역사연구회 회원)씨의 '통일지향의 현대사'라는 강좌를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고자 한다.

역사학습의 출발은 바른 현대사 평가에 기반

이 강좌는 대략 4가지 범주로 요약되는데 첫째, 역사공부의 올바른 자세는 교과서에서 암송한 개념을 현실에 도입하는 식이 아니라 현실에서 출발하여 어떠한 개념을 도출시키는 것이라는 점과 둘째, 역사의 연구대상설정에 있어서 변혁운동의 범위인 현사회 대중운동·통일전선운동에 대해서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힘의 실체는 있으나 바람같은 존재인 전위조직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셋째로는 과거의 역사가들은 동시대의 역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전시대를 암흑기 그이전을 황금기라는 식으로 오도해왔으나, 현대역사의 평가를 바르게 내림은 역사학습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은 주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는 역사학습은 정세평가와 분리해서 사고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등이다.

광주항쟁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함은 역사에서의 하나의 편향이라고 지적하는 김광운씨는 통일지향의 현대사를 한국전쟁이후 민족민주운동권의 단절공백으로 파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1백여명으로 시작된 이번 강좌가 마지막날에는 20여명의 저조한 참석율을 보였으며 대부분 학생들의 수준이 개념이나 논의를 암기하는데 머물러 과학적 사고로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이번 강좌 강사들의 평가이다. 그러나, 재야연구단체의 학생과의 연대사업이라는 이런종류의 특강이 우리역사연구의 나아갈 길에 한줄기 빛으로 나마 보탬이 되리라 생각된다.

〈김 유 선 記者〉

'민족투쟁'의 자취를 찾아

— 사학과 지리산 유적 답사 보고서

빨치산의 위상 재정립 절실히 요구되는 한국 현대사
이땅 민족 모순을 온몸으로 거부한 자주통일의 군상

"가자. 지리산으로! 파르티잔의 숨결을 찾아."

은폐와 왜곡으로 점철된 한국의 현대사. 그 중에서도 깊은 산중, 눈덮힌 골짜기에서 이름없이 사라져간 유격대의 참모습을 찾고자 한국 근현대사 연구회를 중심으로 사학과의 청년사학도들은 지리산으로의 답사를 떠나게 되었다.

남한내 유격활동에 관한 부분은 수기와 영화를 통해 대중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미비한 역사인식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대부분인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단순한 호기심차원의 유격활동에 대한 인식을 뛰어넘어 자주통일조국 건설의 과정으로서의 우리의 현대사속에서 유격활동을 올바로 자리매김하고 그 현재적의미와 실천적과제까지도 내오기 위해 사학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속에서 이번 답사는 준비되었다. 이번의 주제답사는 기존의 유물, 유적을 돌아보는 형식을벗어나 당시 빨치산이나 토벌대로 활동하였던 인물과의 대담과 증언채록이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그것은 우리의 현대사가 모두 그렇듯이 남아있는 유적이 거의 없다는 이유와 생생한 증언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이유였다.

증언자로 우리가 만났던 분들은 답사전에 만난 최태환씨(전인민군 장교로 한국전쟁에 참가. 전라도 일대에서 빨치산 활동을 함. '젊은 혁명가의 초상'의 저자)와 본답사기간 중 만난 빨치산 출신의 장모씨와 황모씨 그리고 토벌대 출신의 정윤균씨였다.

답사 첫째날 우리들이 만난 증인은 남원군 산내면에 사시는 장모씨로 당시 전북도당 연락요원으로 활동하였던 분이었다. 이 분과의 대담속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전해들은 수 있었다.

이 분이 입산하게 된 동기는 제주도 출병거부와 남북 통일을 외치며 일어나 본격적인 유격활동의 계기가 된 여순반란당시 입산을 위해 이 마을을 지나던 홍순석, 김지회가 이끄는 여수 14연대에게 식량을 대주었다는 혐의로 경찰에게 모진고문을 받은 것 때문이라 한다. 사회주의 사상에 접할 기회같은 것도 없었던 이분은 당시 경찰의 모진 탄압을 피해 산으로 들어갔던 많은 민중들의 한 예인 것이었다. 산에서의 활동 중 한국전쟁을 만나 남원군당과 전북도당에서 그 일대 지리를 잘 안다는 이유로 연락반과 정찰반등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토벌대에 잡혀 형무소 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 증언속에서 당시 유격대들의 규율과 생활, 전투등을 구체적으로 전해 들을 수 있었다.

답사 둘째날 산내면에서 만난 증언자는 한국전쟁 당시 전북도당 탱크병단장과 남부군단 45사단장으로 활동하셨던 황모씨였다. 빨치산을 구분할때 해방 후 자주독립국가를 요구하며 이루어졌던 수많은 민중항쟁과 그에 대한 미군정의 탄압속에서 산으로 들어가 유격활동을 한 것을 구빨치산이라하고 한국전쟁이 일어난 후 지역주민과 퇴로가 끊긴 인민군들로 구성되어 제2전선을 구축하며 후방에서의 유격활동을 벌인 것을 신빨치산이라 한다. 황모씨는 전형적인 구빨치산으로 입산때까지의 행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는 일제시대 징병으로 중국대륙에 끌려간 후 그곳에서 해방을 맞았다. 해방을 맞고서 조국에 곧바로 돌아오지 못하고 소련군에게 전쟁포로로 잡혀 49년에서야 조국땅을 밟을 수 있었다.

입산동기가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황선생은 "해방이 된 후 조국에 와보니 일정때 날뛰던 친일주구들이 그대로 설치고 있었어. 그들에게 잡혀 모진고문을 받고 입산을 결심했지"

또 입산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입산을 해보니 그 지방에서 진실한 민족주의자들이 산으로 들어왔던 것을 알수 있었지. 그야말로 친일주구들을 반대했고 앞으로 우리가 자주권을 갖자 하던 사람들이었지"

계속되는 증언속에서 우리들은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시기의 빨치산들이 사회주의 사상에 투철했던 사람들이나 북에서 남파된 사람들이 아닌 이 땅 민족모순을 온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 모순을 거부하며 산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투쟁한 것은 단순한 이념투쟁이 아니라 일본에서 미국으로 간판만 바뀐 외세에 대항한 민족을 위한 투쟁이었지."

황선생과의 귀중한 만남 후 노고단을 거쳐 화엄사에서 1박을 하고 답사 셋째날을 맞았다. 이날 화개면 의신마을에서 만난 증언자는 전날 만났던 증인들과는 다른 위치속에서 당시를 보냈던 당시 빨치산 토벌대 정윤균씨였다. 이 분은 50년 대한청년단에 입단하여 덕유산, 지리산, 내장산 등지에서 토벌대로 활동하였다한다. 이분으로부터 이현상의 죽음, 대성골에서의 빨치산 대토벌등에 대해 증언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정윤균씨는 증언을 통해 당시 사회적 모순을 인정하면서도 빨치산이 생겨나고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었던 것의 원인을 개인적인 원한이나 계층간의 불화에서 찾고 있었다.

이 분과의 증언이 끝나고 자리를 뜨면서 당시 민족적 모순을 이해하지 못한채 미군정과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토벌대들도 역사의 피해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답사 넷째날 우리가 찾은 곳은 벽소령에서 토끼봉까지의 지리산 주능선으로서 당시 빨치산과 토벌대의 접전이 심했던 곳이었다. '피의 능선'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남쪽으로 빗점골을 끼고 있었는데 이곳이 바로 남부군의 최고사령관인 이현상이 사살된 장소이다. 전날의 힘든 일정 탓으로 모두 지쳐있었지만 여학우들의 짐을 들어주고 서로 격려하며 행군을 진행하였다. 이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은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속에서의 유격대원들(여성유격대원도 상당수 있었다)은 이보다 훨씬 길고 힘든 행군과 투쟁들을 어떻게 견디어 냈을까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끼니를 거른채 혹한속에서 지리산을 행군하면서 고통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통일조국에 대한 절실한 염원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유격대들이 '눈에 덮여 사라진 길을 열며'외쳤던 '자주통일조국'이 현재에도 그 의미를 가진다고 할때 빨치산 전사들은 역사속에 묻혀버린 군상들이 아니라 자주통일조국건설의 과제를 부여받고 있는 90년대의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다가오는 실체인 것이다.

이 승 근
〈문리대 사학2〉

"내가 산으로 들어간 것은 해방이 되고 나서도 친일파가 날뛰는 것이 보기 싫어서였지"

학술정보

'제5회 동대 문학상'

'제5회 동대 문학상' 작품모집이 동국대신문사 주최로 9월24일부터 28일까지 이루어진다.

전국대학생을 대상으로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시(5편 이상), 소설(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 평론(60매 내외)의 부문의 원고를 모집하며 작품은 재학증명서 1통을 첨부해서 동국대학교 신문사로 제출하면 된다.

입상작은 10월24일자 동대신문에 발표되며 시 15만원, 소설 평론 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90년 가을박물관 공개강좌'

국립중앙박물관(관장 한병삼)은 9월1일부터 11월10일까지 매주토요일 하오 2시 동관사회교육관에서 90년가을박물관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연락처:서울 739-3872〉

'환경공해및 오염'에 대한 특별강좌

'환경공해및 오염'에 대한 특별강좌가 카톨릭교회 주최로 9월 1일부터 10월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5시~6시사이에 명동성당 문화관2층에서 진행된다.

주제는 성서에 나타난 창조물, 대기오염, 핵공해, 오염된 식품, 무농약 유기농산물, 쓰레기오염및 처리, 환경에 대한 대책, 그리스도 신앙의 관점에서 본 창조물 등이다.

아라리 월례 발표회

아라리 연구원(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연구원)은 28일 하오 6시 박은홍(라틴아메리카 분과)연구원의 발표로 '니카라과판 페레스트로이카의 좌절과 전진'을 주제로 월례발표회를 가진다. 〈연락처: 877-7351〉

의한 림프소절의 발생에 관한 조직학적 연구 4.경희대학원

▲서동엽
1.의학 2.인제의대 외과외래 부교수 3.The Mechanism of Negative Inotropic Action of Procaine on Isolated RatAtria 4.경희대학원

▲최 승
1.의학 2.병원개업 3.비정상 월경 주기에서 과배란 유도시에 혈중 Estradilo치와 난포성숙에 관한 연구 4.경희대학원

◇ 치의학 박사 ◇

▲김경선
1.치의학 3.치과용 석고계 매몰재의 묵성에 관한 연구 4.경희대학원

▲김은주
1.치의학 2.병원개업 3.VINCRISTINE이 흰쥐하악골의 관절연골판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4.경희대학원

▲임애란
1.치의학 2.병원개업 3.도재 냉각방법의 차이가 금속-도제간 열팽창 양상과 결합력에 미치는 영향 4.경희대학원

▲김응린
1.치의학 2.병원개업 3.절창이 백서 설외 화학적 발암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4.경희대학원

▲전병수
1.치의학 2.병원개업 3.a-Tocopherol 및 Ganoderma lucidum이 백서치은의 발암억제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4.경희대학원

▲박진훈
1.치의학 2.경북대치의학과 조교수 3.치과용 복합레진의 파괴인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4.경북대학원

▲오병원
1.치의학 2.서울적십자병원치과과장 3.고동 아말감과 Glass ionomer-silver cement 의 생물학적 평가에 관한 연구

▲정지향
1.치의학 2.병원개업 3.치석내 무기물 성분과 중금속 함량에 관한 연구 4.경희대학원

▲허원실
1.치의학 2.대전을지병원악안면구강외과장 3.Butyl-Cyanoacrylate (Histoacryl)와 Fibrin Sealant(Tisseel)를 이용한 피부 이식시 조직치유에 관한 실험적 연구 4.경희대학원

▲부용철
1.치의학 2.병원개업 3.도시 상수도수 불소화사업의 비용 절약에 관한 연구 4.경희대학원

▲심원섭
1.치의학 2.병원개업 3.실활치의 교정적 치아 이동시 치근및 치주조직의 변화에 관한 실험적 연구 4.경희대학원

▲신원목
1.치의학 2.병원개업 3.인삼의 신 및 순환계 기능에 대한 cefotaxime의 영향 4.경희대학원

◇ 한의학 박사 ◇

▲길촌영성
1.한의학 2.경희의료원 3.

▲권용택
1.한의학 2.병원개업 3.침, 전침, 온원 및 초용담수침이 담석형성식으로 유발된 생쥐 담석에 미치는 영향 4.경희대학원.

▲김기현
1.한의학 2.대전한의과대학침구학 3.침, 구, 전침 초오수침자극이 백서 뇌부위별 Catecholamine 함량에 미치는 영향 4.경희대학원

▲라영질
1.한의학 2.병원개업 3.대자호탕 및 그 구성약물이 mouse의 담석증 모형에 미치는 영향 4.경희대학원

▲허인무
1.한의학 2.병원개업 3.평위산, 향사평위산 및 불환금전기산의 효능에 관한 실험적 연구 4.경희대학원

▲손숙영
1.한의학 2.병원개업 3.가감소장음자, 가감오적산 및 가감보중익기탕이 Gentamycin sulfate로 유발된 백서 위손상에 관한 연구 4.경희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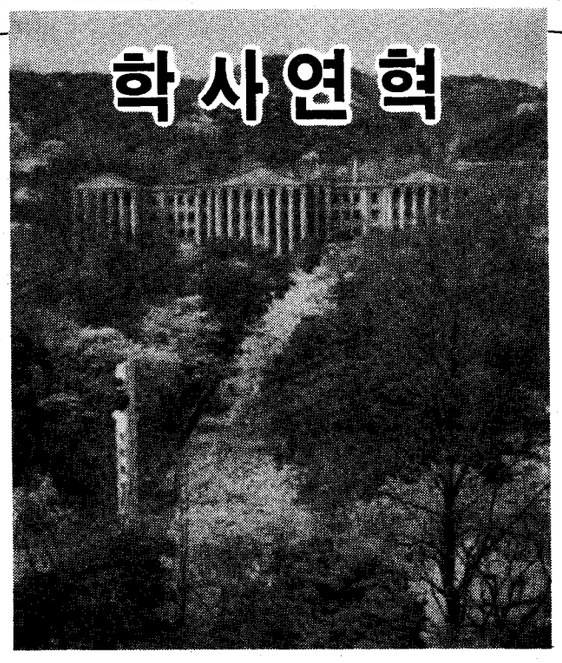
◇ 약학박사 ◇

▲류동율
1.약학 2.약국개업 3.Berberine 유도체 합성 및 항균작용에 관한 연구 4.경희대학원

▲장승엽
1.약학 2.국립보건원 보건연구관5급 3.좀가시오갈피나무 Eleutherococcus senticosus Max. var. subinermis S. Chang et C. Yook의 생약학적 연구 4.경희대학원

▲정경옥
1.약학 3.Berberinephenolbetaine 유도체 합성 및 활성 연구

학사연혁



▲1949년 2월 15일 : 배병대학관을 모체로 재단법인 성재학원 설립
▲1951년 5월 18일 : 조영식박사 재단인수, 이사장으로 취임
▲1952년 2월 3일 : 신흥대학(4년제)승격인가
▲1954년 2월 9일 : 신흥대학 대학원 설립인가
▲1954년 3월 1일 : 신문방송국 및 보건소착공
▲1954년 4월 10일 : 신문방송국 및 보건소완공
▲1955년 2월 28일 : 신흥대학교(종합대학교) 설립인가(문리대, 법대,정경대, 체육대)
▲1955년 5월 12일 : 대학주보 창간
▲1956년 6월 7일 : 조영식총장 종신이사 취임
▲1956년 10월 23일 : 제1회 대학제 개최
▲1957년 5월 22일 : 교지 '고황'창간
▲1957년 10월 3일 : 대학의 소리 방송국 (V.O.U)설치
▲1958년 4월 8일 :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설치 인가
▲1958년 5월 15일 : 대학생활 (The University Life)창간
▲1959년 8월 1일 : 제1과학관 준공
▲1960년 3월 1일 : 경희대학교로 교명 변경
▲1960년 8월 3일 : 음악대학관 준공
▲1961년 10월 10일 : 오정명여사 재단 이사장취임
▲1968년 6월 13일 : 제2차 세계 총장회의 본교주관으로 개최
▲1969년 2월 20일 : 공과대학 신설
▲1969년 8월 30일 : 제2과학관 준공
▲1971년 4월 8일 : 사범대학관 증축
▲1971년 5월 18일 : 학생회관, 시청각교육원 준공
▲1971년 10월 15일 : 경희의료원(의과 부속병원, 치과부속병원, 한과부속병원)개원 (1천베드)
▲1972년 11월 8일 : 세계최초로 무약물침술마취수술 성공
▲1973년 9월 25일 : 제3차 세계침구학술대회 개최
▲1974년 1월 20일 : 한국최초로 한국학박사과정 신설
▲1975년 6월 6일 : 인공관절 대치수술 국내최초
▲1976년 6월 30일 : 제1차 국제학술 시포지움 개최
▲1978년 6월 13일 : 동양최초 유일의 자연박물관 개관
▲1978년 10월 7일 : 2부대학 신설인가(정원 2백명)
▲1979년 1월 19일 : 수원대학 신설허가
▲1979년 12월 28일 : IAUP 부설 국제평화연구소 개소
▲1980년 3월 8일 : 수원대학캠퍼스에서 첫 입학식 거행
▲1980년 8월 18일 : 학교법인 고황재단 이사장에 조영식박사 추대, 4대총장에 안치열박사 취임
▲1981년 2월 20일 : 경희의료원 국내최초로 암치료제 인터페론 생산
▲1982년 3월 15일 : 수원캠퍼스 외국어 교육관 준공
▲1984년 4월 2일 : 대학주보 지령 800호 발행
▲1984년 9월 28일 : 수원캠퍼스 기숙사 애저원 준공
▲1985년 4월 23일 : 수원캠퍼스 사회대학관 산업대학관 기공
▲1985년 5월 12일 : 대학주보 창간30주년
▲1986년 5월 8일 :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증축
▲1988년 3월 14일 : 대학주보 지령 900호 발행
▲1989년 5월 18일 : 경희학원 개교 40주년
▲1989년 7월 31일 : 자연과학 대학관 준공
▲1989년 9월 4일 : 법과대학관 준공
▲1990년 3월 2일 : 이정경대 2부 수업부폐지, 주간으로 통합
▲1990년 4월 10일 :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제4기 총대의원대회 개최
▲1990년 5월 18일 : 경희학원 개교 41주년
▲1990년 8월 30일 : 제39회 후기학위수여식